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2.06. (수) 21:00 ~ 23:40	작성자	한승혜
회의 장소	줌(zoom) 화상회의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호찬 총괄멘토, 한승혜 멘토, 고수현, 김민아, 김제혁, 김준한, 김혜빈, 김환희, 박서희, 성무준, 오주현, 장지영, 전형준, 최민서, 최아영, 최은주, 홍진솔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제안설명 2. 위원단 선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나. 추후 일정 안내 1. 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결정 가. 14개의 입법청원안 중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강화’에 관한 입법청원안이 대표안건으로 선정 2. 정치법제위원회 위원단 선출 가.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위원장으로 고수현 의원 선출 나.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간사로 김혜빈 의원 선출 다.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서기로 최민서 의원 선출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1) 이호찬 총괄멘토 : 상임위원회 회의 규칙에 대한 안내. 첫째, 상임위 회의는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할 것. 둘째, 모든 청소년 의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를 사용할 것.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 ‘본 위원회’와 같은 3인칭을 사용할 것.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합당한 사유와 함께 이를 알려야 함. 다만, 불참석이 과도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정활동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추후일정 안내 1) 이호찬 총괄멘토 : 본회의 이전 일정 안내 첫째, 정치법제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대표안건이 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대표안건이 배제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차순위 대표안건 필요.			

둘째, 첫 본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 개최될 예정으로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2월 중순 진행되어야 함.

셋째,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 논의와 본회의에서 정치법제위원회의 입법청원안 발표를 위한 팀을 구성해야 함. 팀은 '입법청원안 작성' 팀과 '발표 자료 제작 및 대본 작성' 팀으로 구성됨.

마지막, 팀 구성과 차기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은 위원장 주도 하에 이루어지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1. 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결정

1) 최민서 의원 : '소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지능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만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개선과 지능형 범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곽동현 의원 : 청소년 촉법소년 하향 법률안은 다음 국회에서 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므로 입법청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함.

→ 최민서 의원 : 통과 예정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될지 확실한 상황은 아님.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청원해야 한다고 생각.

→ 곽동현 의원 :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할 역할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법률이나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안을 생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청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최민서 의원 : 기존 법안과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 그렇다면 혹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의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 질문.

→ 곽동현 의원 : 중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준한 의원 : 촉법소년의 연령을 몇 세까지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

→ 최민서 의원 : 기존 만 14세 이상을 만 10세로 하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김민아 의원 :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은 형법상의 개정이 필요할 것인데 민법에서 만 10세의 경우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됨. 이로 인해 민법과 형법상 대립이 생길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 최민서 의원 :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청원제안이기에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절충하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함.

→ 홍진솔 의원 : 최민서 의원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준비하여 의견을 보충하고자 함.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촉법소년은 13세로 전체에서 77%를 차지함.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죄를 방조하고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내모는 것이라 생각. 또한,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음. 앞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촉법소년을 만 12세로 하향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촉법소년을 12세 미만으로 하고, 일률적 처벌이 아닌 중범죄를 지은 자에게 성인법과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촉법소년의 나이에 속하거나 비교적 가까운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최민서 의원 : 본 의원 역시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소년법 범죄에 해당하는 나이대의 대상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함.

2) 김혜빈 의원 :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금지’에 대한 제안설명.

스토킹 범죄의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가해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스톱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강해지는 추세임. 스톱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 형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지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3) 김환희 의원 :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제안설명.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8세에서 19세이지만 투표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져 교육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정작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 2022년 지방선거와 총선 출마와 피선거권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으며 정당가입 가능 연령 역시 만 16세로 하향됨. 이는 청소년은 이미 충분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함. 따라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1항에 적시되어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 및 관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 역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 생각.

→ 성무준 의원 : 김환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나, 일각에서 피교육자 신분인 청소년이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특정 정당지지 및 옹호 발언)으로 인해 정치적 가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 김환희 의원 : 선거 연령 하향이 법제화 된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지금은 청소년이 선거권자가 아니지만 미래에 선거권자가 된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지침이 신설될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교직원이 학생의 정치적 가치관을 파괴하거나 말씀하신 행위는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김준한 의원 : 정치에 미숙하고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이 과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듦.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 성무준 의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피선거권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정당 가입 나이도 만 16세로 하향조정됨. 이는 만 16세의 나이에도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을 개정하였다고 생각함. 본 의원은 이러한 연유 탓에 제안한 안건 역시 만 16세로 제안하고 있음.

→ 곽동현 의원 :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얻어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다고 생각함. 도로를 바꾸거나 학교를 바꾸는 등 국회의원의 일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데 교육감 선거만 가능하다면,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문.

→ 김환희 의원 : 본 의원의 안건은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이지만 안건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15조를 개정하여 1항에 적시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임. 이를 개정한다면 교육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 답변.

4) 장지영 의원 :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대한 개정을 입법청원안으로 제안함. 현재 시행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조항의 각 호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조항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공개 기준으로 인해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각 시도 경찰청의 위원회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본 의원은 해당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조항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성립하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증대와 피의자 신상 공개의 본 목적인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5) 전형준 의원 :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 2항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청소년기본법 제15조 2항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본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함.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는 매일, 매달, 매년 달라지는 사회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너무 긴 주기라 생각함. 3년의 주기를 '1년'으로 바꾸어 청소년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이는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청소년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존중 국가로서 인정받고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임.

6) 최은주 의원 : '성폭력 현행법의 수위'에 대한 제안설명.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제안하게 됨. 22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등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으며 현행 성폭력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함. 여론과 시대적 의견은 법 개정에 압력을 줄 수 있으니 지금이 법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함. 본 의원은 감형없이 본래 명시된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안함.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에 따라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 피의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으며 2년 6개월의 형을 받은 다른 성폭력 사례 역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소 7년형을 받았어야 함. 감형없는 형량 구형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형량이 적어 되풀이 되는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7) 고수현 의원 :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강화'에 대한 제안설명.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약한 수준에 속하고, 민주시민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빈약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최근 학생들의 정당가입을 격려하고 이를 허락하는 교칙이 만들어지며 학생 인권이 신장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청소년들이 정치 교육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부분 탁상공론적이고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짐. 본 의원은 독일을 표본 삼아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초등학생부터 학교, 부모님, 사회,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편제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자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라 생각함. 또한, 부모나 어른에 의해 정치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을 막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함. 정치교육이 학생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헌법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성무준 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 교육' 과목이 있음. 의원님의 의견이 독일처럼 초중등학교에 정치교과를 설치하는 것인지, 현재 민주시민 교육과 같은 특별형태의 교육

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고수현 의원 :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치 과목이 실제 초, 중등학교의 교육 편제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김준한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학습'이란, 학생들의 이해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초등학생들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대한 기초적 지식을 쌓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복잡하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체계와 법률체계를 초등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생각하여 질문함.

→ 고수현 의원 : 정치가 '학생들에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 또한, 정치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교육의 본질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충분히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교육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사회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순수하고 학문적이고 개념적인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8) 김제혁 의원 : '대학수학시험 제도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현행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체가 아닌 일부 엘리트 중심주의로 개인의 개성과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함. 또한, 개인의 꿈을 제한하고 일부 재력가들의 입시 비리, 불필요한 경쟁과 교육비 소비를 부추기며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음. 본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제도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통합 수능을 세분화된 수능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부각시켜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재수 인원을 줄여 더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서 취업 또는 창업 기회 제공하고, 더 많은 숨은 사회 능력자들을 찾아내 국가 발전 및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9) 성무준 의원 : '중고등학교 학생회의 권한 증진에 관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고등학교 학생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7조' 개정예에 대해 입법청원을 제안. 현행 법은 학생자치에 대한 문구가 애매모호한 탓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중고등학교 학생회는 대학교의 총학생회에 비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담당 교원의 통제를 받음. 특히, 학교 행정에 대해 의심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학생을 대표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소극적이거나 하지 못하는 실정임. 중고등학교 학생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증진하고, 교내에서도 활발한 학생참여 및 정치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김준한 의원 : 학생회 권한 증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질문.

→ 성무준 의원 : 예를 들어,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회계적 부분을 학생 자체적으로 감사하여 학생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 축제와 같은 학생 자치 부분에서도 교원이나 학교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학생회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할 수 있는 자율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함.

→ 고수현 의원 : 현 상황에서 각 학교에 있는 학생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 성무준 의원 :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 목소리 자체를 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학교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 고수현 의원 : 학생 인권 조례가 지난 몇 년간 발달하며 학교와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입법을 통해 학교 학생회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회의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

→ 성무준 의원 :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학교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기에 청원을 제안한 것. 본 의원의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의심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 이 의제기를 하였으나 학생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개인 학생과의 면담으로 일이 해결된 사례가 있음. 본 위원의 학교처럼 학생회가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학교들이 있어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

10) 홍진솔 의원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제안설명.

앞서 최민서 의원이 설명할 때 덧붙여 본 의원의 안건을 설명하였으므로 간단하게 설명함. 기존 정부안과 다른 하향선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으며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활동이라 생각함.

11) 김민아 의원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의 관한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

국회 사무처가 직접 고용하는 정기직 공무원들에게는 임명시 임명장을 수여하는 반면, 보좌직원의 경우 같은 사무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많다는 이유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음. 본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신규 채용, 승진 시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법률을 재정할 것을 청원하고자 함.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은 보좌직원의 권익과 역량, 직업적 자부심 강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질도 상승될 것.

→ 최은주 의원 : 해당 청원안이 청소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

→ 김민아 의원 :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재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소속감과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삶도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

12) 오주현 의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항 추가'에 대한 제안설명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신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안. 장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는 비장애인 유권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선거 정보가 적음.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7조 2항과 3항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참정권'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임. 본 의원은 2항 1호, 2호, 3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1호를 추가하여 정당 로고나 후보자의 사진이 부착된 넓은 기표칸의 투표용지를 제공하여 장애인, 노인 등 글자만으로 후보를 분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2호는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을 배제한 선거 안내자료를 의무화하여 신체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신장하고자 함. 3호로는 점자형 선거공부를 의무화하여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 이러한 조항은 신체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신장을 실현하고, 시각장애인의 투표 접근성과 정치 인식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참정권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음.

13) 김준한 의원 : '청소년 담배문화의 확산방지'에 대한 제안설명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담배문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함.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과 청소년의 교육, 부모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재 진행형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흡연은 청소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 본 의원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추가적 도입 및 확대 주장함.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담배를 끊을 의지가 있는 학생은 75%로 조사됨. 즉, 청소년 담배문제를 타파할 가장 빠르고 의미있는 방안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확대 및 공포'임. 또한, 일반 학교에서도 금연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도입 절실함. 실제 2021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률 감소 및 금연 프로그램 등 인식 개선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

→ 고수현 의원 : 발의하신 의원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금연을 이끌어 내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

→ 김준한 의원 : 시각적 매체를 통한 금연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의 안건은 담배 사용을 줄이는 취지가 아닌 '금연 프로그램의 확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답변.

→ 김민아 의원 : 현재 금연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학교 차원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금연 상담의 경우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중복적인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함.

→ 김준한 의원 : 이미 그런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차별점은 청소년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적 역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답변.

14) 최아영 의원 : ‘가스라이팅 범죄에 관한 처벌방안’에 대한 입법청원안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통제 그 자체로 범죄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필요. 본 의원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처벌 방안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입법청원으로 제안함.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수적이라 생각.

▶ 출석인원 15인 중,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청원안’ 1표, ‘대학수학 시험 제도 일부 개정안’ 1표, ‘청소년기본법 제15조 2항 개정안’ 1표,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2표, ‘중고등학교 학생회 권한 증진’에 대한 안건이 4표를 얻음. 정치법제 위원회의 대표안건으로는 6표를 얻은 고수현 의원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강화’가 채택됨.

2. 정치법제위원회 위원단 선출

가. 위원장 선출 : 김민아, 김환희, 김제혁, 성무준, 최은주, 고수현 의원 입후보.

1) 김민아 의원 : 본 의원은 평소 정치분야에 관심이 많아 뉴스와 국회 회의 영상을 보며 다양한 생각을 함.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이는 소득의 격차와 꿈의 격차를 만드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이라 생각.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본 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 이런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의원님들과 본 위원회를 다양한 국회의 회의를 접한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리더십있게 이끄는 위원장이 될 것. 또한, 고3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많은 입시 정보와 학교생활 경험을 나눔으로써 본 위원회 의원님들과 고민을 나누는 친근한 위원장이 될 것. 위원장이 된다면, 리더십으로 원활한 회의를 이끌고 친근감으로 위원간의 거리를 좁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정치법제위원회를 만들 것.

2) 김환희 의원 : 비록 청소년의회가 처음이지만 본 의회를 제외하고 다른 의회나 리더십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가가기 쉬운 위원장이 될것이라 자부. 행사한 한표가 아깝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김제혁 의원 : 대한민국 최연소 사업가출신으로 실제 사업체 경영능력과 리더십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다 자부하며 자신있음. 무조건 청소년을 위한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임. 또한, 본 의원은 2년간 본 의원은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모든 정당을 거치며 여러 산전수전을 겪은 진정한 활동형 정치인임. 막강한 리더십과 책임, 경험으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

4) 성무준 의원 : 본 의원은 여러 청소년 기구 활동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위원장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노력할 것. 둘째, 본 의원은 과거부터 논쟁을 잘 정리하고 궁극적인 결론을 잘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음. 위원회 특성상, 논쟁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논쟁과 분쟁을 정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

5) 최은주 의원 : 본 의원이 정치법제위원회 의원님들께 세 가지 공약을 약속드림. 첫째,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 것. 낮이 익어도, 새로운 얼굴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편하고 존중하며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밝은 성격과 활발함으로 본 위원회의 의원들이 편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둘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것. 불편한 점이 있을 때 혹여 기분이 상할까 불평을 하기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쉽고 편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권위있는 위원장이 아닌 소통하는 위원장이 될 것. 셋째, 대표안건을 성사시킬 것을 약속함. 대표안건은 정법위를 대표하고 의원님을 대표하는 안건임으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통과시키고자 할 것. 본 의원은 전교회장이자 용산구 청소년의회 의원장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냄. 그 과정에서 리더십과 책임은 인정받았음. 본 의원의 경험과 경력을 믿는다면 1년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며 결과물을 보여주는 의원이 될 것.

6) 고수현 의원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와 짧은 시간동안 본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본 의원의 철학은 '싸우는 국회야말로 정말 올바르고 효율적인 국회이다'라는 것임. 국회 그리고 법이란 사회가 지켜야 할 울타리이자 이 사회에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국가가 이러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함. 법을 제정하는데 수많은 논의와 찬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음. 뜨거운 논쟁을 통해 보다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으며 본 의원은 논쟁을 뜨겁게 달굴 자신있음. 비록 논쟁으로 인해 좋은 분위기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운 정, 미운 정보다 좋은 것은 싸운 정이라 생각함. 위원장이 된다면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더 활발한 논의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임. 본 의원은 토론 대회에서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의미있는 논의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 둘째,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 모든 사람에게 배울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것.

▶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위원장 투표결과, 출석인원 15인 중 김민아 의원 1표, 김환희 의원 2표, 최은주 의원 6표, 고수현 의원 6표를 기록함. 1차 투표에서 최은주 의원과 고수현 의원이 동표를 받아 2차 투표를 한 결과, 최은주 의원 7표, 고수현 의원 8표를 얻으며 고수현 의원이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됨.

나. 간사 선출 : 김준한, 김혜빈 의원 입후보

1) 김준한 의원 : 아직까지 대청의 활동에 대해 미숙하고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새내기라 확실한 비전도 대답도 없으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임. 본 의원은 본 위원회에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오고자 함. 새로움이란 본 의원의 이점임. 업무를 처리할 때 기존 틀에 갇히지 않고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을 이룩할 것. 간사는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화'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 또한, '꾸준함' 역시 본의원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음.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소통은 필연적이나 어렵고 복잡함. 꾸준함을 통해 꾸준히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소통을 노력할 것. 마지막으로 '의지'를 약속함.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함. 미숙하다면 배우고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면 외울 것임.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해낼 것이고, 미숙하고, 힘들고, 허우적거릴 지라도 변화를 가져오고 꾸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

2) 김혜빈 의원 : 리더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리더 경험을 통해 위원장과 서기를 도와 능력을 펼칠 것. 모든 의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여 최고의 간사가 될 것을 약속함.

▶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간사 투표결과, 출석인원 15인 중 김준한 의원 6표, 김혜빈 의원 7표, 기권 1표로 김혜빈 의원이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간사로 선출됨.

다. 서기 선출 : 최민서 의원 단독 입후보(찬반투표)

1) 최민서 의원 : 서기라는 자리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도와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열심히 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도울 것.

▶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서기 투표결과, 출석인원 15인 중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최민서 의원이 정치법제위원회 상반기 서기로 선출됨.

라. 위원단 선출 소감

1) 고수현 위원장 :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 김혜빈 간사 :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감사하고 공약처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최고의 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

3) 최민서 서기 : 서기라는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찬성해주신 의원님들, 반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 유념해서 열심히 할 것.